

북한개발소식

05

2020 May

통권 175호

| 이달의 주제 |

탈북민 회심과 치유, 그리고 교회의 역할



월간

북한개발소식

2020 May

CONTENTS

이달의 주제 :

탈북민 회심과 치유,
그리고 교회의 역할



01

권두칼럼

탈북민의 회심과
치유를 통해 본 교회 공동체와
복음의 의미



08

칼럼 1· 전명희

탈북민의 회심과 치유,
그리고 교회의 역할

15

칼럼 2· 안란희

탈북성도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북한복음화



21

칼럼 3· 김주한

탈북민 목회,
생존이냐 회심이냐?
그리고 교회의 역할



27

탈북민 수기· 마리아



31

북한 뉴스



37

서평

인민의 얼굴 -
북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



35

북한 기도 제목



탈북민의 회심과 치유를 통해 본 교회 공동체와 복음의 의미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평화통일과 한반도 복음화의 비전은 한반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동의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전을 개인의 삶과 교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다. 품은 이상에 비해 실제 준비 상황이나 교회의 역량이 열악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한국에 온 3만이 조금 넘는 탈북민들에 대한 복음사역에도 난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관심은 있더라도 몇몇 직분자나 사역자의 부담감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마저도 대다수의 교회들은 무관심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품을 수 없다면 통일과 한반도 복음화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본 소식지는 기존에도 한국 교회 편에서 탈북민 복음 사역 방안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종종 나누어왔다. 이번 호에서는 비슷한 주제에 대해 사역의 대상이 될 탈북민의 입장을 좀

더 주목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관심가지고 참여해야 할 바른 방향, 바른 자세를 논해보고자 한다.

탈북민과 기독교 신앙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입국 탈북민의 숫자가 3만 3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감사한 것은 그 중에 40% 이상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랜 기간 탈북민을 위해 헌신해온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 또 함께한 한국 교회의 수고의 결실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입국 이후 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신앙에 소홀해지거나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입국 탈북민의 교회 이탈 현상은 이미 기독교 신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탈북민을 양육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탈북민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바르게 제시하고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이미 많은 기독교학자들에 의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정우는 탈북민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받아드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¹ 연구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 보다는 막막한 상황에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교회의 모습에서 감동을 얻고 신앙을 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특히 기독교 신앙 자체는 자신들의 기존 세계관에 빗대어 볼 때 어색하고 비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사람이 좋아 신앙을 받아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비록 교회의 도움을 받고 감사한 마음에 기독교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되고 더 나아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북한의 유물론적 교육과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사회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믿음을 가로막는 여러 지식적, 심리적 장벽이 여전히 신앙 생활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음을 받아드린 이후 탈북 성도들은 신앙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고 마음의 치유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동행 의식이 큰 격려가 되어주었고, 또한 거듭남과 옛 생활과 단절 및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라는 메시지가 과거로 인한 트라우마, 상처와 아픔을 지닌 성도들에게 더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탈북 과정에

서 가족의 해체, 인간에 대한 불신을 경험한 이들에게 교회를 통해 접하게 되는 가족과 유사한 유대관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편 교회는 남한에서 잘나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또 물질적 축복과 성공의 메시지를 따라 교회를 찾은 이들도 있었다. 탈북과 남한 생활 중에 경험한 기존 가치체계의 혼란 속에서 도덕적 덕목에 대해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이 가치관의 안정감을 준다는 응답도 있었다.

다만 신앙생활이 복음의 굳건한 밑바탕보다는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으니 신앙생활 잘해야한다는식의 거래적 감정, 또는 지원금에 따른 대가성 있는 신앙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었다. 교회에서의 소통의 어려움도 발견되었다. 북한에서 수십년간 익숙했던 사회, 문화 경험을 송두리째 버리도록 하는 식의 경향이 교회 내에도 상당하고, 그 속에서 아직은 낯선 새로운 절대적인 진리를 일방적으로 주입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당황스러움, 주저함, 반발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명희는 남한에 온지 5년 이상 되었고, 교회에 3년 이상 출석한 탈북 성도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그들의 신앙여정을 추적했다.²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탈북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존재적 만남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드렸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또 기적을 통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는 사역자 및 성도와의 관계경험이 중요하

1 한정우, “북한이탈주민의 기독교와의 만남에 관한 질적 연구”, 성결대학교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10(2), 2016, 134-154.

2 전명희 외, “탈북 기독교인들의 신앙 여정에 관한 연구: 근거 이론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4), 2019.11, 173-207



게 작용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내면화 되기까지 과정에 함께한 사역자 및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앙의 시작은 극적인 체험이었지만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북 성도의 신앙 여정은 탈북 세대 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탈북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금식기도 등 열정적인 신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체험에 의지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그 이면에 하나님에 대해 광야에서 만난 신적 존재, 권위적 존재, 더 나아가 잘잘못을 따지고 별을 주는 징벌적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트라우마 경험과 북한 체제 경험으로 인해 내면 세계에 하나님상이 왜곡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는 막혀 있는 잘못된 하나님상을 극복하고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받아드릴 수 있도록 교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탈북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탈북 여

성의 트라우마와 신앙생활에 관한 연구도 있다. 김경숙은 탈북민의 트라우마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북한에서 30년 이상 거주하였고 5년 이상 결혼 경험이 있는 12명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를 진행하였다.³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1차적으로 북한의 만연한 거시적, 미시적 폭력과 이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하였다. 탈북여성들은 거시적으로는 북한의 전체주의, 군사주의, 공포테러 문화 속에서 노동자, 부양자, 혁명가 등 다중성역할을 일방적으로 부여받아왔고, 미시적으로는 탁아소 시절부터 시작되는 강압적 통제와 압제, 규칙과 순종, 감정 억압 등 의지를 꺾는 교육을 받아왔다. 성인이 되어서도 만연한 가정폭력 및 사회 전반의 감시와 고발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자기 표현을 억제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였다. 탈북 과정에서는 체포와 복송의 위협, 인신매매와 강제혼 등의 인권유린과 그 과정에서의 신

3 김경숙, “탈북여성의 트라우마가 하나님 표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1), 2018.2, 35-66.

체/정서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개인의 안전과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불신과 부정적인 심상을 내면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로 인해 정서조절기능의 손상과 정신 신체화 증상(불면, 우울, 소화장애, 복부 통증, 약물 중독 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신앙을 가지는데 있어서도 큰 장애가 되었다. 한 예로 하나님을 학대적인 권위자, 학대적인 남편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한 응답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곳까지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섬뜩하게 두렵다”는 고백을 통해 이러한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성경필사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등 왜곡된, 또는 율법적 신앙체계에 고착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위 연구는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한 개인의 상처 및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공동체의 역할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탈북 여성의 트라우마는 신뢰의 기반 손상된 데서 비롯되었는데, 화해와 치유의 교회 공동체 경험은 트라우마 극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서는 교리학습 등 인지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탈북여성을 보호의 대상, 또는 선교의 대상으로 수동적이고 자기중심적 관계로 설정해서도 곤란하다고 보았다. 대신 그들을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이자 주역으로 대우할 때, 이러한 상호적이고 공정한 관계 속에 에너지를 주고받는 경험이 무력감에 빠졌던 탈북여성의 치유와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회는 이들이 왜곡된 하나님상을 가지지 않도록, 기복적이고 도구적인 신앙 색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신관, 권위관을 극복하고 참된 자유를 얻도록 도와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교회의 응답

앞서 언급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들이 있다. 첫째로 탈북민들이 가진 복음 수용과 신앙성장에 대한 장애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 사회는 철저한 무신론적, 유물론적 사상이 바탕이 된 곳이며, 폭력과 공포를 바탕으로 극심한 감시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보다는 불신에 익숙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 환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올바른 관계 맺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기 어렵게 만든다. 거기에 북한 내에서, 또 탈북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트라우마를 양산하고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탈북민의 마음 상태는 신앙을 받아드리는데 장애가 되고, 신앙을 가지더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이제부터라도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의 경험, 공동체 경험을 충분히 하는 것이다. 기존에 알지 못했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경험할 때 탈북민들은 점진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공포나 율법주의적인 모습에서 신뢰의 관계가 바탕이 되는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다.

두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복음의 메시지



대한 고민과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교회에서 탈북민에게 복음적 접근을 시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상반된 태도가 자주 관찰된다. 즉 짜여진 훈련 및 교육 과정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교회가 있고, 또는 구제의 관점에서 생활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도 있다. 사실 두가지 접근 모두 탈북민의 신앙성장에 필요하지만, 탈북 성도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가르침에 중점을 둔 접근에 과하게 몰두할 경우 지식은 있지만 신앙은 없는 이들을 만들어낼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도움을 받기 위해, 또 고마운 마음에 훈련을 받기는 했지만 신앙이 없는 탈북민들을 지금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또한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복종 속에서 지도자의 교시를 주기적으로 암기하고 각종 호상 비판을 수십년간 진행해온 이들에게 신앙생활이 고달픈 경험의 반복처럼 느껴질 우려도 높아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신앙 성장으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구제 중심의 접근도 한계가 명확하다. 나를 도와주고 지원해주니 도리상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도 한다는 태도를 가진 탈북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성도는 타 종교나 이단 종파라도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된다고 했을 때 상

대적으로 쉽게 이동하게 된다. 또한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와 탈북민의 관계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평등하지 않은 구조로 형성될 위험도 있다.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바라보지 않는 고정관념이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생활이 녹록치 않은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식의 구제적 관점에서의 접근, 또는 잘못된 사상 교육을 받아왔고 한국사회가 서투른, 그래서 배워야 하고 계몽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태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물질적으로 또는 지성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게 만들고, 또 그러한 오류가 있는지조차 깨닫기 어렵게 만든다. 쉽게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은 탈북민 사역에 심각한 장애 또는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탈북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주역으로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주고받음이 아닌 상호 교류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들을 일방적인 계몽과 수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함께 경험하고, 전인적으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앞선 문제제기의 연장선에서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탈북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탈북민은 교회의 일원이기 보다는 특수 계층으로 치부하기 쉽다. 그러나

탈북민 성도 가운데서는 고난과 역경 속에 강렬한 하나님 만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약해지는 한국교회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신앙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 사역은 단순히 교회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부담스러운 사역이 아닌 한국 성도들이 잊어버린 위대하신 하나님의 현존의 경험을 회복하는 계기로서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정말로 복된 소식

탈북민 사역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그리고 탈북민을 포함한 다른 이들에게도 복된 소식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탈북 성도의 신앙에서 복음은 단순한 교리의 집합이 아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며, 자유를 모르던 이에게 진정한 자유가 되시고 관계 맺을 줄 몰랐던 이에게 선물로 주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관계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은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정서적, 육신적 태도와 상황을 변화시키는 전인적인 차원의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모든 탈북 성도가 이러한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잘 구현하고자 애쓰는 성도, 사역자, 교회와 공동체와의 만남이 탈북성도의 신앙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결국 탈북민 사역은 각각의 교회가 복음적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에 얼마

나 충실한지를 질문하는 사역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탈북민들이 기독교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 탈북 과정에서 이미 신앙 경험을 한 상태에서 교회를 찾지만 그 중 상당수가 실망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교회의 적절한 사역이나 프로그램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제대로 파악한 응답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보다는 현재 교회의 상황은 탈북민들의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통한 회복을 이뤄가는데 역부족이며, 어떤 프로그램 이상의 결정적인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현재 여러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가족 덕분에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수이며, 교회도 이러한 성도들이 관성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일에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거기에 더하여 몇몇 교회에서는 성경적, 그리스도적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며,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추하고 부끄러운 분쟁과 반목, 부정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 이러한 현실에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지기까지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교회 환경과 함께 미지근한 신앙, 사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분리된 이중적 성도, 가나안(교회에 가지 않는) 성도의 증가는 교회가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반기독교적 사상이 바탕이 된 체제에서 탈출한 탈북민들에게 전인적

인 복음을 제시하는 과제는 교회가 당연히 감당해야할 사역임과 동시에 그 당연한 일에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과 부담을 통해 교회가 얼마나 복음에 소홀해왔는지 깨닫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들이 탈북민 사역을 특수하게 바라보기 보다는, 그래서 의무감에 따른 사역을 진행하기 보다는 교회의 근본부터 갱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한반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탈북민 복음화, 더 나아가 북한 복음화는 우리의 선택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과제이자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가 제대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



탈북민의 회심과 치유, 그리고 교회의 역할

전명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인간 신을 우상화하며 살아오던 한 탈북 여성이 탈북하여 중국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강렬하고 뜨겁게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 탈북해서 중국에서 살아남으면서 남한까지 오는 모든 과정은 성경 속 이야기보다도 더 생생한 삶의 드라마였으며 부인할 수 없는 존재론적 만남으로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었다. 이 여인은 하나원에서 나와서 언덕에서 아랫 마을을 내려다보며 울분이 터졌다고 한다.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도대체 남한은 뭘 그리 잘했길래 이렇게 하나님 믿고 복을 받았고, 우리 북한은 아직도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울고 앉아 있는지... 그 이후 여인은 신학도 공부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북한을 위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것이 본인이 사명이라 여겼다. 또한, 남한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북한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며 부르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서 밤낮없이 사역에 매달렸다. 이 여인에게서 북에 두고 온 아들이 있었는데 6살 때 헤어진 아들을 찾는 간절함으로 신앙에 매달렸고, 결

국 15년 만에 브로커를 통해 아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에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만 알았어요!” 이 어머니에게 삶의 소망은 자녀를 데리고 오는 일이었고,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과 같이 삶의 의미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동안 자녀를 위해 돈을 마련하고, 브로커를 연결하고 밤낮없이 기도하며 기적같이 그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지난 15년 동안의 버려진 아이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강을 건널 때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북송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남한까지 무사히 오게 해주셨다는 믿음과 체험이 자녀에게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상처는 뒤로 묻혀진 채 호들갑을 떠는 어머니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이전에 엄마 없이 떠돌며 살았던 상실과 상처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어머니는 응답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북한식 강요를 하지만, 아들은 어릴 때 헤어져 서먹한 엄마와 살기도 불편하고,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이 내팽개쳐진 거 같은 자신

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시작되었으며, 왜 사는 지 모르는 우울증과 신앙적 회의가 찾아왔다.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며 아들을 다그칠 때마다 ‘그렇게 왜 데리고 왔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런 자녀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 이전의 고통과는 비할 수 없는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는 버림의 대상이 아니었어. 버리지 않았어. 너희들 못지않게 엄마들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엄마들의 마음에 간장을 녹여가며 너희가 살아오기를 기다렸어.....” 그러나 이곳에 온 청소년기, 성인기 자녀들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 살기 위해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며 죽음의 터널을 거쳐 왔으니 이제는 긴장을 좀 풀고 쉽고 편한 속에 거하고 싶다. 그러나 한국은 또 다른 생활전선이고 마음의 쉴 틈은 잘 생기지가 않는다.

필자는 연구팀을 꾸려 지난 몇 년간 기독교 신앙을 가진 탈북민들과 탈북민 사역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신앙 여정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이 이야기는 연구를 진행하며 알게 된 한 신앙심 깊은 탈북 여성의 고백의 한자락이다. 사실 이 가슴 아픈 주인공 여성과 자녀 이야기는 탈북민들에게는 그리 낯선 장면은 아니라고 한다. 모양과 내용은 달라도 탈북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으로 힘을 다해 버티으며 기적같은 기도응답을 받기도 하였지만 고비고비가 여전히 산봉우리이며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할 수도 없는 분단에서 오는 상실과 비극이 그들 삶을 짓누르는 실존인 경우가 많다. 본 글에서는 부족하나마 그동안의 연

구 경험에서 깨닫게 된 것을 나누며 탈북민들의 회심과 치유, 그리고 교회의 역할에 대한 소견을 적어보고자 하였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는 북한 내 종교의 자유가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발표하였고, 북한은 지난 18년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특별 우려국’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2019).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 헌법에 ‘신앙의 자유’는 명시되어 있지만 종교 박해는 여전한 상태이다. 초기에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탈북 1세대들은 북한 사회에서 반기독교적 교육을 받았거나 기독교를 거의 접해보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 거기에 김일성 3대 세습은 하나의 거대종교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으므로 탈북민들이 그 사회를 벗어나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 삶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는 일인 것이다. 또한 김씨 일가 3대의 우상화 작업 자체가 기독교적 양식을 유사하게 모방하여 왔기에 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하교회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으나 대다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놓여있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대량탈북이 이루어질 때에 개신교 선교사들과 기독교 단체들은 탈북민들의 국내 입국과정을 헌신적으로 도왔고,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이러한 사역을 통해 많은 탈북민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며, 2000년도 초 조사에서는 탈북민 중 70%가 이미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서 입국하였다고 보고하기도 하였

다. 지난 10여 년간 기독교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약 40% 정도가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하고 있어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믿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서도 신앙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마치 이민 사회에 적응하는 이민자들이 한인교회를 통해 사회적 결집을 이루듯이 탈북민 교회는 이들에게 있어서 실향민의 아픔을 나누고 새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탈북민 기독교인들은 크게 믿음의 시작이 된 1세대와 그 자녀세대로 구분이 되는데 이들은 조금 다른 특징과 필요를 가지고 있다.

‘탈북’이 이끈 신앙의 경험

회심에 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루이스 램

보 교수는 회심은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회심으로 이끄는 내면적이고 점진적 과정을 거치다가 위기를 통해 회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때 회심으로 이끄는 위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생사와 맞닿아 있는 위기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 보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많은 경우 생사를 건 탈북과 중국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정, 그리고 남한이라는 낯선 곳에 정착하는 전 과정에서 생존의 위기와 고난의 사건들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부할 수 없는 ‘존재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탈북 1세대 신앙인들은 주로 중국에서 조선족 교회나 개신교 선교사들이 제공하던 ‘사역장’ 등을 통해 신앙공동체를 접하게 된 경우이다. 이러한 신앙공동체들이 이들에게 복송의 위험



속에서 중국에서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안전기지도 하였다. 이러한 사역적 시도들은 많은 열매도 있었지만 때로는 지나친 성경읽기와 암송, 행위적 신앙 모습의 강요 등으로 부작용도 보고된 바가 있었다. 최근에는 소위 다이렉트로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많아지면서 이미 남한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는 가족들을 통해 기독교를 소개받거나 하나원 등에서의 포교활동을 통해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탈북민들이 회심하고 기독교 신앙에 의지하게 될 때 사선을 넘어오면서 극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간증들이 있다. 그러나 수년간의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하나님께 압도당하거나 두려운 분으로 느끼므로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처벌하시는 하나님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순간에 부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잘 생기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신앙 성장 과정에서 흑백 논리적 사고나 율법적으로 신앙체계에 고착되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정죄와 평가에 익숙한 북한의 경험이 답습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 학자들은 북한 사회 자체가 폭력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포정치적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노출된 경험과 탈북과정에서의 트라우마 경험으로 남한에 와서 자기(Self)의 정체성을 찾고 회복되는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러한 트라우마 노출 경험은 단지 심리적인 어려움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측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신앙의 발달 과정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통합적 변화 과정으로 심리적 성숙과 영적 성숙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진전하게 된다. 탈북민들이 지닌 여러 종류의 트라우마적 상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과는 달리 마음속에는 처벌적이고 응징하시는 듯한 하나님이 살고 계셔서 실제 삶에서는 이러한 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기적을 체험하는 경험은 하였으나, 하나님과 친해지고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과 깊은 사귄에 들어가기 까지는 교회 공동체의 따스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내면화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그들은 한국 교회에서 안전하게 치유되는 공동체 경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상실과 결핍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진행되는 과정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사랑과 필요를 채우는 1차적 공동체인데, 탈북민들이 겪은 공통된 아픔 중 하나가 북한에서부터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가족의 상실, 해체, 죽음을 경험하거나 다시 만나 재결합과 갈등을 경험하는 등 가족에 관한 아픔들이 상당하다. 탈북 1세대들이 북한에 놓고 온 재북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면서 이들을 살려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럼 가족은 삶의 이유이기도 하였지만 막상 가족의 문제로 고통이 큰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필자는 1세대 탈북 부모들과 친척들의 기도로 한국에 오게 된 자녀들의 신앙경험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적이 있다. 탈북 청년세대들은 탈북의 이유와 과정도 다르며 세대 간의 차이도 있어서 사실 부모세대와 신앙적 측면에서도 갈등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20-30대의 탈북청년세대들은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지나면서 생존의 문제가 더 부각되는 시기기에 교육으로 전수되는 북한체제에 대한 영향력과 세뇌로부터는 다소 자유로운 측면도 있었다. 즉 탈북 부모세대의 신앙인들이 북한체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로 신앙 색채도 다소 율법적이고 강요적인 측면이 있다면, 탈북 2세대들은 조금 더 유연한 태도로

남한 생활의 적응 및 신앙 성장도 이루고 있을 수 있었다. 부모세대는 자신들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더라도 자녀들은 더 빨리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신앙적으로도 빨리 성장하고 모범적 모습을 갖추기를 바란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내적인 질서와 평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탈북 기독교인 가족에게는 세대 간의 갈등과 아픔, 상처가 동여매지기보다는 심화되는 모습을 가끔 목격하게 된다. 남한에 온 자녀세대들은 그동안 쌓여왔던 피로와 고통, 트라우마와 상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회복될 시간이 필요하다. 생존과 안전만을 위한 삶이 아닌 사회에서 나름대로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을 존중하며 귀히여기는 모습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에는 이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상당히 크다.

통일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독교공동체의 역할과 사명

상실이 일어난 곳에는 채움이 필요하다. 그 채움을 우리는 단순히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믿는 사려깊은 성도들을 통해 채움의 지난한 과정은 완성되어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채움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자녀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몫이 아니다. 즉 탈북민들의 가족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탈북 부모세대들도 여전히 소진되고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간절함은 있으나 온전히 자녀세대를 감싸 안고 회복하는 과정을 지나기에는 같이 피 흘린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간극은 누가 채워야 하는가. 여기서 교회공동체에 희망이 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먼저 온 탈북민일 수도 있고, 때로는 탈북민을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남한의 성도들 일수도 있다. 그러므로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탈북민들이 금방금방 좋아져 빨리빨리 생활에 적응하기만을 바라면 안된다. 오히려 나라의 분단으로 파생된 이 아픔들에 대해, 그들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절망과 분노, 삶의 고단함 등에 대해서, 내면세계의 상실과 고통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함께 슬퍼하며 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애도란 타자의 상실을 인정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인데 손쉽게 탈북민이 겪은 고통과 북한체제가 낳은 아픔을 축소하고 일상적 삶으로 편입하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

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통과 과히 견줄만한 고통을 몸에 지니고 여기까지 와있는 트라우마로 점철되었지만 또다른 승리를 이룬 이들의 삶에 남겨진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올려주는 과정이 한동안 필요하다. 이 시간과 공간이 바로 치유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들의 기억 속의 한국교회는 처음 왔을 때 친구가 되어주기보다는 주로 후원금을 내밀었고, 중국의 사역장에서 성경을 10번도 넘게 읽고 온 자신들에게 가르치려는 교사가 되고픈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우리는 탈북민들을 사역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통일을 꿈꾸는 통일민의 마음으로 참된 형제자매요 친구가 되는 과정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험을 한 탈북 신앙인들이 공통적 요인으로 뽑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러한 사람들과 공동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지지해주고 무슨 행동을 해도 우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어린이가 같은 짓을 해도 허용해주는 환경과 사람들 말이다. 이는 마치 수혈과 같이 자신들은 수혈을 해주고 쓰러지지 않지만, 받는 이에게는 허기진 몸에 심리적 산소와 자양분이 되어주는 존재들을 말한다. 이러한 경험은 담아주고 수용되는 교회공동체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필자가 만나본 탈북 사역자들과 탈북민 교회들은 저마다 다른 모델들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탈북민들만의 공간도 존중되고, 탈북민과 남한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이들을 위한 퇴행적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소경의 눈에 흙을 발라서 고치셨을 때도, 우물가의 여인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을 때도 이들에게 고쳐진 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셨다. 때로는 바로 주님을 좇으려는 이들에게도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셨다. 가끔은 탈북민들이 북한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온몸을 바쳐 사역에 뛰어드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할만큼 귀하고 훌륭하다. 그러나 혹시라도 북한에서의 삶에서처럼 자원함이 아니라 그래야만 해서,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께 혼이 날까봐 라는 두려움으로 자신을 불사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랑일 것이다. 한국 교회도 그동안

전쟁과 분단을 이겨내고자 빠른 속도로 극복하고 부흥해야만 한다는 강박으로 몸집이 커졌지만 내실을 차근차근 다지지 못한 허점으로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 와있다. 이는 탈북민들의 신앙 여정과 다가올 통일시대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뒤를 돌아다보며 사랑 안에서 두려움과 형벌이 없는 참된 교제를 누리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일을 준비하며 나아가 이 때에 바로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참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자유를 누리는 치유 속에서 이 과정이 진행되기를 꿈꿔본다. 기독교 공동체야말로 그것이 가능한 곳이라는 것이 소망이며 이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탈북성도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북한복음화

안란희 (예수 새민교회 담임)

1. 서론

본고는 탈북성도들의 목회경험을 토대로 “탈북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이해를 제시함으로써 교회가 보다 현실적인 직관을 가지고 북한복음화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탈북민의 기독교 입교”¹ 관련 해서는 초창기 탈북성도들에게 ‘복음’의 주체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한다. 왜냐하면 탈북하면서 생명의 위험을 받는 순간 자신들을 지켜 주신 그분의 사랑을 체휼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며 예수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독교에 입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민의 한국사회 실태와 관점”에서 현재 탈북민들은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 등 도심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여

러 과정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문제를 겪는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이 잘 되지 않거나 취업이 된다 해도 단순노동·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며 한국생활에 크게 갈등을 겪는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체제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양식과 규범, 사고방식과 역사해석, 삶의 가치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² 끝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교회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탈북성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탈북성도들의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평신도들도 중요하지만, 탈북성도들의 사역을 전담할 목회자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고난도의 훈련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또한 복음통일 사명은 특정한 교회나 단체들이 아닌 모든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1 안란희, “탈북민들의 기독교신앙과 목회사역에 관한 연구: 1992-2014년을 중심으로”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2015.2.), 24-56.

2 “탈북민 사역, 근본 가치 뒤집고 ‘사람의 통일’을”, 정재영, 2013.

필자는 <탈북자>³로서 개신교 신앙을 경험하고 나아가 신학공부를 마치고 현재 목회현장에서, 다시 말하자면 탈북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맡아오면서 많은 우려와 문제의식을 느낀다. 왜냐면 북한사회에서 ‘종교는 미신’이며 비과학적이라고 교육을 받고 살아온 이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3년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중의 50%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힌바가 있다.⁴ 하지만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에 입국한 후, 교회를 몇 번 다녔다고 하여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3개월 하나월 교육을 마치고 퇴소하여 처음에는 교회생활에 충실히 임한다. 그러나 길게는 1년 정도 출석하다가 점차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II. 본 론

1. 탈북민의 기독교 입교

1990년대 말을 전후로 하여 지금까지 약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기타의 문제 때문에 탈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식량위기 때

에 탈북을 결단했다. 중국으로 탈북하면서 중국공안의 감시를 피해 살아가야만 하는데, 이때 이들에게 안식처 역할을 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 특히 동북삼성에 위치한 교회들은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탈북민들을 품고 보호해주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섬김 앞에 탈북민들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에 입교하게 되었다.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신앙 훈련을 받고 한국에 와서도 믿음생활을 하게 된다. 현재 신학교와 대학원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은 탈북출신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탈북목회자들은 특별히 이곳에서 살아가는 탈북민의 남한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공동체와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탈북민의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단지 이들을 교회에 출석시키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의 끊임없는 신앙의 삶을 통한 대화와 교제를 통해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탈북민의 한사람을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통일된 이후 북한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과 같다.

2. 탈북민의 한국사회 실태와 관점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포기하고 기대와 희망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한국생활이 녹록치 않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

3 “북한이탈주민, 또는 탈북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법률상 용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조’,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실태 조사』, (서울: 2013), 69쪽



의 모습에서 발견된 공통점은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자신을 거기에 맞춰 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낯선 자본주의 구도와 한국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며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탈북민들이 적지 않게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절망과 혼란 속에 목숨을 끊거나 또 다른 탈출을 시도하며 한국생활을 포기한다. 2015년 통일부에서 발표한 탈북민의 자살률은 한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적응에 실패하여 탈남(脫南)한 사람은 5000여명에 이른다. 2018년 기준으로 약 3만2476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있지만 앞

선 통계에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사회에 부적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⁵ 특히 ‘탈남’하는 이유는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느낀 차별과 편견 때문이라고 한다. 2017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45.5%는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사회 부적응은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이런 일이나 하려고 생명을 걸고 왔는가?”, “내가 이런 편견을 받자고 생명을 걸고 왔는가?” 등의 자기중심적인 의식은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만일 2천4백여만의 북

5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오원환, 2011.



한백성들과 5천여만의 남한백성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났을 경우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회에 깔려 있다고 본다. 또한 탈북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에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의 체감 정도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다. 남한의 역양을 쉽게 구사할 수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비교적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역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장년층과 노년층은 반공사상교육을 받은 남한주민들이 자신들에게 보내는 시선과 냉기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그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사회가 탈북민의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는 대부분의 탈북민들을 자신과 똑같은 국민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단지 못 먹고, 못 입고, 공산체제 속에서 살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들, 신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인식하고자 한다. 탈북민들을 향한 정부의 정책이 좋다 할지라도, 사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남한주민들이 탈북민의 대한 불편한 심기만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3. 탈북민들의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 역할
 목숨을 걸고 탈북은 했지만 여전히 상처와 고통에 시달리는 탈북민들의 아픔과 눈물... 교회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어쩌면 강도 만나

힘들어 하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적어도 교회는 어려움에 있는 탈북민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탈북민들은 힘든 상황에 직면하여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제부터라도 탈북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마음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문제와 삶의 고민까지도 함께 나누는 교회의 역할이 중대하다. 교회가 이들의 아픔과 울부짖음을 같이 공감하고 들어주며 품어줄 때에, 이들을 향해 누구나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구원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언제나 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구심점은 탈북성도들의 상처를 품어주고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명을 교회가 지켜야 한다. 교회공동체 속에 탈북민들을 수용하려는 애정과 이들의 문화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탈북민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선순환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교회는 절망과 혼란 속에 목숨을 끊고 또 다른 탈출을 하려는 탈북민들의 상처에 치유의 수용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한 사람 안에 참된 회심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탈북성도들을 위한 복음전도 프로그램은 단순히 교회 출석이나 개인적인 간증 나눔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오랜 시간

을 두고 서로에게 극진히 헌신하며 ‘타인’, 즉 소외된 자 없는 유기적인 신앙 및 예배 공동체 속으로 포용하는데 초점을 둔, 전도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현재 한국에 있는 탈북목회자들과 목회자후보생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이들이야말로 북한지하교회성도들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통해 북한지하교회성도들의 신앙심도 바람직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남한에 있는 탈북목회자들과 남한기독교와의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북한지하교회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바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복음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곧바로 북한전역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심을 수 있는 사활적인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들은 탈북목회자들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동역자적 관계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III. 결 론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교회가 처한 상황이 복음 전파의 사명 회피에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다. 교회가 맡은 사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복음전파에 힘써야 한다. 오늘날 위기 앞에 교회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대책과 끊임없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탈북민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과 멘토링을 통해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선 탈북민들 스스로가 지금의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터전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가도록 하는 것이다. 탈북민들 중에서 좋은 정착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한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변화되게 될 것이며, 탈북민들은 점차적으로 이 사회 속에 자신들의 터전을 다져나가게 될 것이다. 다음은 한국사회와 교회 공동체 속에 탈북민들을 수용하려는 애정이 있어야 한다. 탈북민과 함께 복음통일을 소망하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교회들이 있기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으며, 이러한 교회들을 통해 남한사회와 더불어 탈북성도들은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러자면 탈북민 목회자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준비된 목회자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 갈 수 있다. 하나님은 한국에 미리 통일의 주력군을 예비하셨다. 그들이 탈북민들이다. 하나님은 탈북민들 중에 이미 사명으로 세우셨으며, 교회개척과 교회사역을 맡겨주심으로써 그들을 연단하고 계신다.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얻는 다양한 사역의 경험들은 향후 복음통일에 매우 귀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탈북민 목회자들을 준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의 인격수양과 협력정신과 영적분별력이다. 탈북목회자들은 북한사회에 대한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 북한주민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땅에

서는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땅에 세워질 교회의 모델은 어떠한가 하며, 지역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늘 질문하며 북한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야 한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탈북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다. 탈북목회자들의 인격수양과 협력정신은 단시간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다. 탈북목회자들은 “신학자가 아닌, 신앙인”⁶으로서의 인격을 갖춰야 하며, 독단식의 사역전개보다는 남한의 교회들과 협력하는 사역에 친숙해야 한다. 그리하여야 북한복음화를 위한 균형 잡힌 탈북목회자로 설 수 있다. 또한 한국교회는 술선수범하여 탈북목회자들과 하나 되는 바르고 건강한 방법들을 창안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보이는 지역교회와 보이지 않는 기독교 문화로서의 교회 밖의 다양한 운동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탈북목회자 양성을 위한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교회 내 탈북민의 성도 증가율과 지역사회 여건에 따른 문화 경제와 사회변동 속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신학생 배출 그리고 목회현장의 연결 등 종합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할 것이다. 필수적으로 지도력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가 이 시대 가운데 요구된다.

6 2014.11.26. 굿타이딩스 김용덕이사장.

탈북민 목회, 생존이냐 회심이냐? 그리고 교회의 역할

김 주 한 (다윗의물맷돌선교회 대표)

1. 들어가면서

전에 북한선교 영역에서 한 원로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탈북민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문제는 아직 한국교회 가운데 묘연한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에서 이번 달 월간지 주제를 탈북민들의 <회심>으로 잡았지만 현대 한국교회 가운데 <회심>이라는 주제 자체를 논하지 않은지 이미 오래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기독교 역사와 한국교회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이 강력한 부흥을 견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북민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토양인 한국교회 자체가 이제는 <회심>을 그리스도인의 본질로 삼지 않는데 이 주제를 탈북민들에게서 점검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죽은 신

앙의 토양으로 이 땅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열매는 극히 드물고, 곳곳의 사역 현지에서는 <탈북민들은 안 된다>고 하는 불신앙의 소리들만 난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글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탈북민 목회 현장의 모습들의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 <회심>의 역사를 세우시는 하나님 손길에 대하여 좀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2. <회심>이 아닌 <생존>이 목표가 된 통일선교, 탈북민 사역의 모습들

먼저 한국교회의 탈북민 선교 실태의 모습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개신교 인구는 967만600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¹ 또한 개신교회 수는 약 5만5천개에 이르고있습

1 조선일보 2016. 12. 19: 개신교 인구 처음으로 불교 인구 넘어서

니다.² 2020년인 현재와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광여호수아 목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2005년 통계자료를 근거로하여 이렇게 많은 한국 개신교회의 역량 중에서 탈북민 선교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실제 진행을 하는 교회는 8.5퍼센트 정도이고 나머지 91.5퍼센트는 아직 관심조차 없는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³ 이렇게 제한된 한국교회 범위 내에서 탈북민 선교는 몇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몇몇 중대형 교회들 위주로 한국교회 안에서 북한 부서의 사역들이 있고, 이외에 한국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별도의 탈북민 목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의 탈북민 목회는 북한부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부서 내에는 책임 교역자가 한국 출신 목회자가 맡아서 진행하는 데도 있고, 탈북민 출신 교역자가 맡아서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밖에서 세워지는 별도의 탈북민 개척목회도 탈북민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와, 한국 목회자가 개척한 탈북민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형태의 탈북민 목회가 나름 다 장단점이 있지만 이 글의 논점은 탈북민 목회 현장에서 <회심>을 중점으로 한 사역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기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넓지도 않은 교세의 영역 안에서 한국교회의 북한부서 사역 모습은 영혼구원과, <회심>에 대한 관심의 면에는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필자가 몸담고 있었던

중대형 교회들은 북한부서의 시스템이 그렇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한 교회의 탈북민 부서는 아주 정교한 부서 시스템과, 탈북민 신앙양육, 구제, 사회적응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선교의 역사도 깊은 나름 한국교회에서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한 성도의 이야기는 참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주는 떡이나 얻어먹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도 있지만 그 외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것이 일반적인 탈북민 목회를 하는 교회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역의 형태는 탈북민 성도들의 <회심>에 초점이 되어 있는 사역의 형태가 아니라 <생존>위주의 도움에 초점을 두고 목회가 이루어지는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사례를 든 교회가 이런데 다른 탈북민 선교를 하는 교회들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탈북민 사역의 모습들은 탈북민들의 한국사회의 문화와, 사회 정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역들은 탈북민들에게 부족한 사회적, 경제적인 면들을 가르쳐주고 채워주는 구제인 관점에 서있으며, 그 속에서 복음은 악세사리에 불과한 면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는 수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탈북민들 가운데 얼마만한 회심자들을 세워냈을까 하는 질문을 이 주제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두렵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매일종교 뉴스1팀 2019. 1. 10 : 개신교 단체 5만5천개-불교 1만3천개-천주교2028개

3 광여호수아. <새터민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쿰란출판사). 102쪽

3. <회심>자를 세워 내기위한 한국교회 안에서의 필자의 노력

필자의 비전은 남북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혼도 남한출신 자매와 했고, 또한 사역도 한국교회와 하나가 됨을 이루어 보고 싶어 상당한 기간을 한국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또 한국교회 안에 있는 북한부서를 맡아서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지난 기간 했던 한국교회 안에서의 탈북민 사역은 뼈아픈 실패들의 열매 밖에 맺지 못했습니다.

필자는 한 중대형 교회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탈북민부서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복음의 열정으로 진행하려는 걸음들에서 종종 마음이 부대끼는 일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때로 필자가 찬양을 인도할 때 봉사자들로부터 <무슨 장례식 곡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필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의아했고 이들에게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몇 번 지적을 받은 문제들 중에는 <설교를 재미있게 하라>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필자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의아했습니다. <인생이란 재미있는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데...> 필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들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첫 사역지의 사역은 정리되고, 제2의 사역지가 다시 열렸습니다. 제2의 사역지도 한 대형교회의 북한부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의 사역지에서는 <동



사무소 사역을 파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교회의 북한부서 사역을 진행하던 중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필자는 한번은 북한부서의 담당 교역자로서 탈북민 성도들의 주일 출석 상태를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화 해보았습니다. 결과 탈북민 성도들은 출석 도표는 늘 주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일부 정보들을 통해 필자는 탈북민 성도들이 돈을 받기 위해 여러 교회들을 다닌다는 말로만 들던 사실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탈북민 성도들은 돈을 주는 데면 이단교회든 뭐든 상관없이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교회의 지도부에 보고 하면서 돈으로 탈북민들을 교회에 출석 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의 했고, 이것으로는 탈북민들에게 신앙을 심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탈북민 사역은 영적 생명의 <회심>이 아닌 탈북민들의 삶의 <생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필자의 현실 사역에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기 사역도 결국에는 생명의 열매를 이루어 내는 빛은 보질 못하고 또한 여러 일과 함께 마무리 되었습니다.

4. 탈북민들 가운데 <회심>의 역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몇 번의 사역을 통하여 필자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나름의 노력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길을 찾았지만 얻은 결론은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으로는 탈북민들이 나중에 통일 북한에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떤 교회에 들어가 부교역자 사역을 진행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었고 자그마한 기도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통일 선교를 향한 생명의 길을 여실지를 간구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집회 중에 어느 날 주님께서는 집회 형식으로 탈북민 영성 부흥 운동을 일으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처음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지원 세력이 없는 필자가 이러한 대형집회들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회를 한번 세우려면 수많은 스텝들과, 재정, 그리고 그곳에 쏟아져야하는 엄청난 수고와, 중보기도의 무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자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다시 <너는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필자는 주님의 그런 마음 앞에 내가 왜 살인자인가고 주님 앞에 반문했고,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믿음이 없어서 이 집회를 세우지 못하면 이 집회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그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을 것인데, 이 집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영혼들에게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된다는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이 마음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이 집회에 대한 나팔을 불었습니다. 집회를 일으키기 위하여 무수한 땅들을 밟고 다녔으며, 또한

탈북민들을 이 집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탈북민 거주 지역에 가서 집회 참여 전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송가를 목이 터져라 하고 외쳤습니다. 필자가 외칠 때의 심정은 중국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외치던 심정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 탈북민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전도하면서 얼마나 고함을 쳤던지 주변 주민들이 신고하여 경찰까지 와서 전도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믿음의 집회는 열렸고, 2차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도 동일한 영혼구원의 집회가 열릴 것입니다. 필자는 집회에서 탈북민들에게 구원의 엄숙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국까지 왔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어 이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걸어 왔던 죽음의 터널보다 몇 백 몇 천배 더 두려운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곳만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건성으로 하면 영낙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이러한 간절한 외침에 탈북민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못 들어 봤다는 탈북민들도 있었고, 또한 천주교 신자, 불교신자가 개신교로 개종하는 역사가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한 집회를 열었는데, 그 속에는 탈북민들도 의도치 않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내심 필자는 탈북민들을 향해 우려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영적으로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수준의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듣고 탈북민들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회에 참가한 탈북민들은 아멘으로 화답했고, 기쁨의 치유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선교회의 기도회에 한 탈북민 형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형제로 말하면 북한에서부터 주먹세계에서 살아오던 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형제의 삶을 일반인들은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형제였는데 기도회에서 말씀을 계속 듣더



니 어느 날 갑자기 오열하면서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다, 지금껏 중년을 넘는 세월을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필자도 이 형제가 왜 이런 감정에 싸여 있는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형제의 심령을 만지고 계시며, 드디어 이 형제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음을 느낄 수 가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그 후 순한 양같이 성품이 변했고, 한두 폰도 아닌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며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탈북민 자매 성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신앙생활 상황 가운데 함께 다니던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을 했을 때 필자는 권면을 했습니다. 자매가 어디를 가든,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매의 자유이다. 또한 내가 막을 권한도 없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분명히 선택해야한다. 본인이 어떤 곳에 몸 담는 것이 본인의 영혼이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자매에게도 눈이 있으니 그 곳을 선택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자매는 여러 화려한 곳들 보다 그 생명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 머물기로 선택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5. 나가면서

많은 탈북민 목회 현장의 경험들의 목소리는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하여 헌신했지만 그 결과는 허무하다고, 혹 기쁨이 있다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도의 얻은 열매처럼, 사막에서 조금의 물로 목을 축이는 정도의 기쁨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필자는 탈북민들 속에서도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혼치 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회심>시키고, 변화 시키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는 역사를 오늘도 주님은 넘치게 진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회심의 역사들을 세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선교를 위하여 탈북민 목회의 현장에 뛰어드는 모든 한국교회의 동역자들 에게 권면합니다. 탈북민 성도들의 <생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회심> 초점을 맞추어 사역하십시오. 순서가 바뀌어야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 사역을 행할 때만이 탈북민 사역이든, 통일선교의 문이든 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14)

마리아

출소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다. 날카로운 보안원의 명령 없이도 눈이 저절로 떠졌다. 내 옆에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것이 참 어색했다. 점심 때 즈음 되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동네사람들과 남편의 친구들이 우리집을 찾아와서 나를 격려해주었다. 참 오랜만에 느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출소를 축하하다며 모두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참팻기(팔) 한 자루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보양식을 해먹으라며 토끼를 잡아오고, 어떤 이는 두부를 한 솥 삶아오고, 또 어떤 사람은 수탉을 잡아왔다. 사치스럽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풍경이었으나 출소한 나를 반겨주는 것이 참 고마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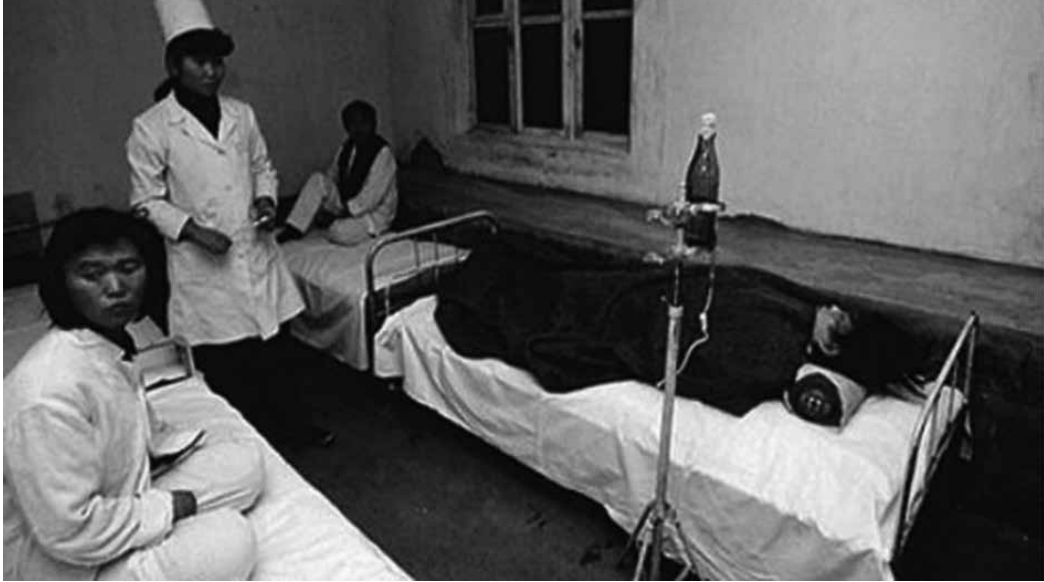
이튿날 담당보안원의 호출로 동네 보안원실에 불려갔다. 웬일인가 싶어 불안한 마음을 추스리며 보안원실에 도착했는데 기존에 내가 알던 보안원이 아닌 새로운 젊은 사람이 앉아있었다. 나를 보며 참 까탈스러운 어조로 “왜 중국에 갔었는가”고 물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올랐다. 나는 이 나라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받겠구나. 중국으로 탈북하여 수감되었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겠구나 싶었다. “내가 가고 싶어 갔었는가. 살고 싶어서 갔다.”며 대들자 보안원은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안착하며 잘 살으라”, “문제가 있으면 말하라”고 내뱉었다. 그러고보니 내가 출소했다는 사실이 나와 관련된 모든 조



〈토끼고기를 각종 재료와 함께 푹 고아 먹는 북한 서민의 대표 보양식, ‘토끼곰’〉

직 가운데 일괄적으로 포치(공지)가 되는 것 같았다. 교도소에 들어갈 때에는 공민증을 버리면서 개,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더니 출소하고 난 후에는 잘 적응하며 사는지 감시를 받는 나의 신세가 참 처량했다.

그로부터 얼마 안되어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그동안 악취가 진동하는 감방에서 위생관념 없이 생활하다보니 온 몸에 똥독이 들었는지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았다. 수 개월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영양 부족으로 건강을 전혀 돌볼 수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골골대는 나를 보던 남편은 없는 살림에 의사를 불러주었지만 그 의사도 별다른 뽕족한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저 며칠동안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으라고 진단해주었다.



〈2000년대 초 북한의 한 지방병원에서 링거병이 없어 맥주병을 소독하여 수액을 투여하는 모습〉

그러나 마냥 누워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집안에 입 하나가 늘었으면 그만큼 뭐라도 살림에 보태야지 않겠냐는 죄책감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로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책임감도 느끼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안이 어질러져 있어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그 모습을 나는 두고볼수가 없었다. 더러움에 찌든 교도소에서 어떻게든 일하는 옷, 먹을 때 입는 옷, 잘 때 입는 옷을 갈아입어가며 위생에 신경쓰려고 몸부림쳤는데, 출소하고 돌아와서도 집에서 내가 먼저 위생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여야한다는 것이 참 울화통이 치밀었다. 그래도 일단은 얼른 일어나 밀린 설거지와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링거를 맞기 시작한지 며칠 안되서였다.

막상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자 일이 끝나지가 않았다. 내가 살던 곳은 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쓸 수 없었기에 매일 아침 집 앞 산에 올라 그 날 쓸 물을 직접 길어와야 했다. 세탁기는커녕 변변한 도구 하나 없이 손으로 다섯 식구 옷을 매일 같이 빨았다. 추위를 쫓고자 장작불을 때면 파리가 그렇게 달려들어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정말 하루 24시간 내내 파리를 잡았던 것 같다. 심지어 우리 집에는 파리채도 없어 옆집에

파리채를 빌려다가 잡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나 없는 동안 남편이 살림을 늘려놓아 키우게 된 돼지 세 마리, 염소 한 마리, 그리고 강아지 여덟 마리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어 하루종일 밥을 주고 똥을 치웠다. 돼지가 먹는 돼지죽은 또 어찌나 그리 손이 많이 가던지 옥수수가루를 물에 펄펄 끓여서 술누룩을 키워 집에서 소주를 피운 후 그 찌꺼기를 모아서 돼지들을 먹였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집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다가 돼지밥으로 주었다.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우리 식구 먹을 것도 부족한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다가도 가축이야말로 살림 밀천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했다. 매일 불을 때고 매일 술죽을 끓이니 여기가 교도소만 아니었지 고된 노동은 여전했다.



〈우물에서 물을 길는 북한 사람〉

출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는 나의 소소한 바람이 무색했다. 허리를 구부린 채 집안일을 계속 하다보니 예전에 통나무에 맞아 약해진 허리에 병이 도져서 한동안 물도 못 기를 정도로 아팠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옷을 사주고 싶다며 다른 마을에 있는 시장에 가자고 했다. 동네에서 옷을 살 수도 있었지만 시외로 나가서 예쁘고 딱 맞는 옷을 사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내가 중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나에게 그동안 예쁜 옷 한 벌 사주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후회되었다고 하였다. 우리는 갓 결혼을 하자마자 생활이 아주 어려워져서 첫째를 출산하고도 먹고 싶었던 꿀 한 번을 못 사 먹었다. 이번에는 마음먹고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옷과 신발을 마음에 드는 걸 사자고 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마웠다. 시외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차 위로 올라타는 것이었다. 화물차 위에 앉아 추위와 위험을 무릅쓰고 몇 시간을 이동하면 큰 동네가 나왔다. 그 동네의 큰 시장을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남편뿐이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따듯해졌다.

나 스스로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 옷을 사는 것도 참 좋았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그보다 더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느새 훌쩍 커버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내가 중국에 갈 때 코흘리개였던 우리 아이들은 내가 출소하고 집에 돌아오니 어느새 학교에 나가 열심히 공부하는 어엿한 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학부모’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



〈화물과 사람을 실은 북한 화물차〉

다. 때마침 시장 근처에 아들 담임선생님이 살고 계셨기에 시장에서 내 옷을 사면서 아들 담임선생님 선물도 챙겨 댁을 방문하였다. 담임선생님은 나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우리 아들 칭찬을 늘어놓으셨다. 우리 아들은 고집도 세고 남자다운 개구장이라고 하셨다. 중국에 있을 적에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학부모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만 같아 마음이 벅찼다. 선생님 댁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나오는 길에 참 내가 비로소 우리 두 아이의 엄마라는 것이 실감이 났다. 감격적인 만남을 뒤로 하고 우리는 근처 시동생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얼마 안있어 남편은 나에게 친정 어머니를 뵙고 오라고 권했다. 사실 진작에 찾아뵈었어야 했지만 건강이 안 좋고 집안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동안 그러지 못했다. 죄송스런 마음을 가득 안은 채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친정집을 향했다. 어머니는 맨발로 나와서 울면서 나를 맞아주셨다. 어머니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미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어머니의 늙은 얼굴에 퍼렇게 멍이 드셨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빙

판길에 넘어져서 얼굴이 그렇게 상하셨다는 것이다. 나이 드신 어머니가 보호자도 없이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이 한없이 죄송스러웠다. 나는 내 가정과 살림이 있어 어머니 곁에 항상 붙어있을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이틀 밤 동안 도란도란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며 어머니가 지어준 밥을 먹었던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어머니를 두고 혼자 집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다.

출소한 후 첫 해는 참 복잡하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나마 겉으로는 사람 사는 것 같았으나 나의 내면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 상태가 지속되었다. 교도소에서 얻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그대로 가진 채 아이들을 돌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대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웠다. 그 와중에 끝없이 반복되는 집안일로 나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출소 전에도 그 이후에도 나는 정말 쉴 수가 없었다. 그나마 전기가 없는 캄캄한 밤이 되면 모든 일이 강제로 끝마치는 것이 참 애석하면서도 좋았다. 밤에는 정말 조용한 바람소리를 듣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방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다. 함께 지옥 같은 세월을 견디고 이겨낸 이 친구들이야말로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동지였기에 그들의 연락은 마치 마른 땅의 단비같이 반가웠다. 그렇지만 반가움도 잠시, 그 친구로부터 루디아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야 말았다. 루디아 선생님은 감방 안에서도 주변의 만류와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고 한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다가 결국에는 발각되어 ‘기독교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고 한다. 이후 그 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알 길이 없다.

감옥에서 만난 루디아 선생님은 내가 중국에서 듣고 배웠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셨던 분이다. 그분과 함께 했던 감옥에서의 신앙생활은 정말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나오지 못한다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수감 동료의 증언을 들으며 나는 삶과 죽음을 바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처음 한국에 와서는 루디아 선생님이 참 많이 생각났다. 그 분을 이북에서도 가장 험한 곳에 두고 나 혼자 여기 한국 땅에 온 것이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다. 이렇게 삼시 세 끼 밥을 먹고 더운 물에서 샤워를 하며 자유롭게 호흡하는 한국 땅의 생활이 어쩔 때는 나에게 과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한다. 루디아 선생님이 나에게 몸소 가르쳐주셨던 신앙생활의 표본은 내가 평생 잊지 않고 살며 나도 누군가의 루디아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다짐과 기도를 한다. <계속>

+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촉각…"중태", "아니다" 주장 엇갈려



미 CNN 방송이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이 사안을 직접 아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4월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후 기사 내용을 보완하면서 다른 미 정부 관리가 김 위원장의 건강에 관한 우려는 신뢰할 만하지만, 그 심각성은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 정부가 김 위원장이 지난 주 심혈관계 수술을 받은 후 위독한 상태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의 건강에 관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김 위원장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복수의 미 정부 관리들이 블룸버그에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이 관리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주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으며 상태가 점차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런 외신 보도는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계 수술을 받았다는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엔케이의 보도와 비슷한 내용이다.

이 외에도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이사

장은 중국의 고위급 대북소식통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집권 후 처음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행사에 불참해 건강이상설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현재 지방에 체류하는 등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 내에 특이 동향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다는 첩보를 미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CNN 보도에 대해 “부정확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정보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탈북민 출신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SNS를 통해 김 위원장의 최근 동향을 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할 여지는 충분하지만 그 이유까지 밝힌 정보는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태구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에서 김씨 일가의 동선과 신변은 일반 주민들은 물론 최고위 간부들도 알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 존엄’의 신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최고 존엄’이 건재하다는 행보를 수일 내로 보여왔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일부 “동해북부 철도건설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로 조기 추진”



〈2007년 5월 17일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진행된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통일부가 동해북부선 강릉에서 제진까지의 철도건설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4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되면 조기에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교추협에서 4월 23일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승인하면서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2월 북한의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도로연결 착공식을 열었지만 지난해 2월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여파로 후속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의 건설 구간은 강릉에서 제진에 이르는 노선으로 총 110여 km이다. 해당 구간은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철도 연결 합의 등 남북 정상 간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27일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북, "코로나 방심은 절대 금물"... '0명 주장'에는 의구심



북한 관영 매체들이 4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게 치달은 다른 나라 상황을 예로 들며 '우리도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여전히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의심 격리자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데다 주민들이 방역과 봉쇄에 지쳐 방심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경각심을 거듭 주문하는 모습이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등은 자만과 방심은 금물이라며 코로나19 방역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의 보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3개월째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 중인 북한은 지난달 주민 8천여명과 외국인 380여명 전원을 격리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또 4월 20일에는 방학을 연기했던 고급중학교(고등학교)와 대학들에서 등교를 시작했다고 전해, 최근 의심환자나 격리자

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내부 소식통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이 방역 관련 주민강연회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수님의 방침 관철을 위한 신형코로나 방역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는 제목의 주민대상 강연회의 교육내용에서 평양시, 황해남도, 함경북도 세 곳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확진자)가 발생되었다고 밝혔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가장 적은 나라라고 선전하며 당의 방역지침을 제대로 집행하자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언론보도 종합)

+ 북한, 총선 하루 앞두고 순항미사일 발사 및 전투기 출격



〈북한이 지난 17년 5월 공개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장면 (로이터)〉

북한이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일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하루 앞둔 4월 14일 지대함으로 추정되는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발사 의도가 통상적인 '군사훈련' 또는 '저강도 무력시위'인지 등을 놓고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동향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는 오전 7시 이후 40여분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15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이 개발한 대함 순항미사일은 중량이 500kg을 넘지 않고, 최대 사거리도 300km 이하여서 탄도미사일과 달리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체제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또 이날 오전 순항미사일 발사와 함께 북한의 Su-25로 추정되는 수호이 전투기와 미그기 계열 전투기 등 여러 대의 비행 활동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 수호이 계열 전투기가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3월 29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16일 만이며, 올해 들어 5번째 발사다.

+ 트럼프 "김정은에게서 최근 멋진 서한 받아"... 북한은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언급하며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멋진 서한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지만 오래도록 반복해온 것이라고 언급한 뒤 김 위원장으로부터 멋진 서한을 받았고 두 정상의 관계는 좋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편지를 받은 시기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만약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미국이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는 북한과 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

게 끝날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고 말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은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이 지난시기 오고 간 친서들에 대하여 회고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근 우리 최고지도부는 미국 대통령에게 그 어떤 편지도 보낸 것이 없다"고 밝혔다.

+ 태국 수용소 내 한국행 탈북민 전무..."20년만에 처음, 코로나 여파"



〈지난 2007년 11월 중국에서 미얀마와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들.〉

VOA는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가기 위해 가장 많이 경유하는 태국 수도 방콕의 이민국수용소(IDC) 내 한국행 탈북민이 전무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방콕의 외교 소식통 등 복수의 소식통은 20일 VOA에 방콕의 이민국수용소(IDC) 내 한국행 탈북민이 지난주부터 전무하다고 말했다. 방콕 이민국수용소는 탈북민이 한국 혹은 미국으로 가기 위해 태국에서 마지막으로 거치는 최종 관문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탈북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매년 편차가 있지만 한국 입국 탈북민의 평균 70%가 태국을 통해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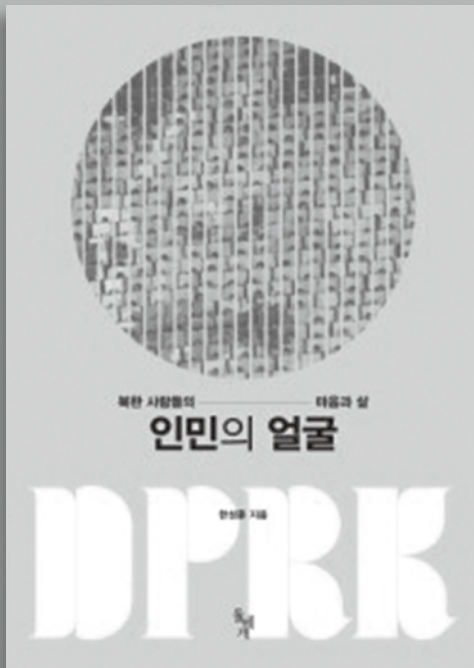
2007년 중반까지는 유엔난민기구(UNHCR)는 방콕에서 탈북민 업무를 담당했지만, 탈북민들이 폭증하면서 외교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행을 제외한 한국행 탈북민 업무는 전면 중단했다. 이후 태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직접 협력하면서

한국행 탈북민들의 출국이 과거 수 개월에서 한 달 안팎으로 빨라진 대신 모든 탈북민은 이민국수용소(IDC)에 반드시 입소한 뒤 출국 절차를 밟아왔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전까지는 매달 수 십 명의 탈북자가 꾸준히 태국으로 입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내 소식통과 탈북민 구출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탈북민들의 중국 내 이동이 석 달째 중단되면서 태국에서 탈북민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1월 말부터 신분증과 여행증명서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강력한 이동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라오스나 태국도 국경을 닫은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135명으로, 11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참고: VOA, 4월 22일)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인민의 얼굴 - 북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

저자: 한성훈

출판사: 아가페북스

발행일: 2019년 6월 24일

가격: 22,000원

북한을 이해함에 있어 어떤 이들이 강조하는 점 중 하나는 북한의 지도층과 북한의 주민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층은 독재 체제와 잘못된 사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해치는 존재이지만, 그 아래서 고통받는 주민들은 그러한 악행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북한을 뭉뚱그려 악의 존재 치부하고 언급 자체를 터부시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또다른 잘못된 이해를 낳을 수 있다. 북한 사람을 단순

히 권력의 압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속히 해방시켜줘야 할 존재로 단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 몰두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남한의 발전된 경제와 자유로운 삶을 전달한다면 금세 바뀔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으며, 북한 사람들을 단순히 계몽시켜야 할 존재, 뒤쳐져 있고 상대적으로 무지하거나 무능력하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높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상당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사고하며 나름의 생활 방식을 형성하고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북한의 체제의 강압과 세뇌로 인

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 제적 체제와는 별개로 북한 사람들이 형성해온 사고방식과 감정은 체제의 강압은 사라지더라도 한순간에 변화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북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싫든 북한 체제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쌓아왔던 공통의 사고 방식과 감정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소개할 책, “인민의 얼굴 - 북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인간형, 그리고 그 안에서 공유되는 공통의 정서를 추적하는 책이다. 이 책에서 주민이나 시민이 아닌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독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흔들리는 인민”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성분제와 상호감시를 바탕으로 한 통제적 시스템에 익숙해있던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 확대 등으로 인해 흔들리는 경로를 기술하고 있다. 2부 “인민의 일상생활”은 인민들이 매일의 생활을 영위하는 북한 사회의 특성을 하나씩 짚어 간다. 체제가 내세우는 바른 인간형, 집단주의적 생활 양식과 선전 선동, 또 전평시 구분이 없는 사회의 특성 등이 꼽힌다. 3부 “인민의 내면 세계”는 그 사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내면화 된 감정에 대해 다룬다. 신천박물관 등으로 대표되는 뿌리깊은 반미주의와 한국전쟁으로 경험한 개개인의 생존의 두려움,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 속에 암묵적으로 용인된 전시국가 체제와 핵무력 완성을 위한 노력 등을 다룬다. 북한 체제를 전체적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체제

가 중심이 아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선택하는 사고방식과 공유하는 감정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읽기 쉬운 내용의 책은 아니다. 일반 대중 서적이라기 보다는 학술적인 연구 서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던지고 있는 몇몇 화두는 북한 선교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 체제가 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막연한 짐작이 아닌 구체적으로 고민 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의가 있다. 우리 안에 북한 사람에 대한 관점을 점검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보며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해본다.

북한 기도 제목

1. 북한의 코로나 방역과 성도와 주민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되는 와중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피해가 심각합니다. 북한은 열악한 보건의료인프라 등의 이유로 일찍부터 국경을 막고 방역에 열을 올렸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기독교 의료 단체와 활동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북한 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 주민들의 경제문제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따뜻한 봄의 5월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추수했던 식량이 떨어지는 잔인한 춘궁기의 시작입니다. 그간 코로나 방역으로 외부와의 교역도 상당한 제약을 받은 상황에서 식량 부족은 가난한 이들에게 심각한 생계의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서민들, 그리고 박해로 인해 추방당했거나 적대계층으로 취급되어 경제적으로도 고통받는 성도들의 혈연과 후손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이들이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고 생존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한 지원 및 구제 관련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3. 제 3국 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선교현장에 여전히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제3국의 바이러스 확산세는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이동과 활동에 제약이 많고, 감시와 통제도 덩달아 강화된 모양새입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장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특히 강화된 통제 속에 선교 사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또한 외진 농촌지역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운데서 신분을 숨기고 지내는 제3국 북한 여성들, 그리고 제 3국을 비롯한 각국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 탈북민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탈북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먼저 온 통일이며 교회 안에 복음이 얼마나 생생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통일을 바라보고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라면 탈북민 사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탈북민을 향한 편견과 잘못된 시선을 회개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빌 2:1-11)을 회복하고 복음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라디오 방송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국경통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라디오를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북 복음 라디오 방송 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단체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 및 탈북 성도들이 참여하는 자체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이 깨끗한 음질로 전달되고 들려져서 매일 밤마다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그 땅 가운데 들려지도록 기도해주시요.

6.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기독교박해지수 2020년 발표에서 북한은 19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박해 가운데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안전을 위해, 박해로 인해 순교하거나 산간오지 추방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7.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견 아무 움직임이 없는 듯이 보이는 북한이지만 기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에 비해 급속하다고 할만한 여러가지 주민 생활의 변화, 사회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와 김정은의 건강을 둘러싼 혼란 등은 견고해 보이는 북한이지만 예측 밖의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반도가 움직이고 있고 북한도 계획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 속히 북한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도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억압과 폭력의 정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새로운 평화와 공의의 길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0년 5월 1일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여성 사역부분 : ○명 / 일반 사역부분 : ○명)

주요업무

-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 배정(개별 협의)
- 여성 부분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 참여

지원자격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공산권 선교에 헌신된 자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 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들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드와치리스트 2020

World Watch List

크리스찬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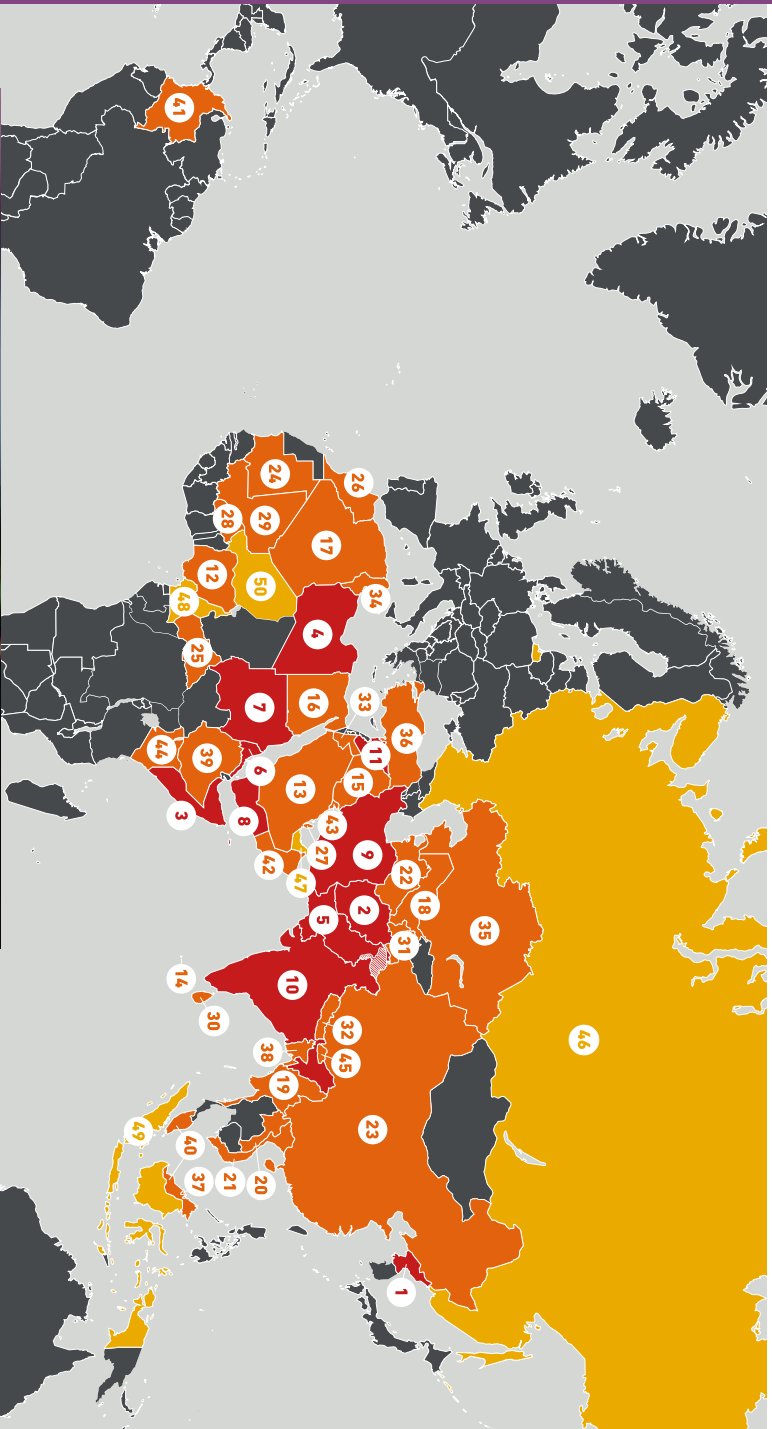
- | | |
|--------------|----------------|
| 1 북한 | 28 모로코 |
| 2 아프가니스탄 | 29 카타르 |
| 3 소말리아 | 30 부르키나파소 |
| 4 리비아 | 31 말리 |
| 5 파키스탄 | 32 스리랑카 |
| 6 에리트레아 | 33 터키 |
| 7 수단 | 34 케냐 |
| 8 예멘 | 35 오만 |
| 9 이란 | 36 튀니지 |
| 10 인도 | 37 카자흐스탄 |
| 11 시리아 | 38 터키 |
| 12 니자리아 | 39 브라질 |
| 13 사우디아라비아 | 40 방글라데시 |
| 14 콜롬비아 | 41 에티오피아 |
| 15 이라크 | 42 말레이시아 |
| 16 아랍트 | 43 쿠웨이트 |
| 17 알제리 | 44 오만 |
| 18 우즈베키스탄 | 45 케냐 |
| 19 미얀마 | 46 라오스 |
| 20 라오스 | 47 러시아연방 |
| 21 베트남 | 48 아랍에미리트(UAE) |
| 22 투르크메니스탄 | 49 카메룬 |
| 23 중국 | 50 인도네시아 |
| 24 모리타니아 | 51 니제르 |
| 2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

박해 수준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 높은 수준의 박해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는 크리스찬의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해마다 발표되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오픈도어 연구자들이 10개 국가의 원정으로 부터 오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수준은 오픈도어가 이용하는 평가점수 시스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복원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개인과 교회로 사회 생활 기타에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조사 방법과 기준들은 국제종교자유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감사를 받습니다. WWI 2020 데이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크리스찬회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라메쉬는 스리랑카 마타칼로이 교회에서 2019년 부활주일에 자살폭탄테러범이 시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자기해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라고 크리스찬회는 말합니다.

“자신이 발명한 다음 날 밤에도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렸고 나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정말 강해요. 남편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잃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것을 사랑 하신다 하셔서 나의 깨어진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세계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회와 또 같이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라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후원물품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해 우리를 후원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는 피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세요.”



“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예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서 15:30

www.opendoors.or.kr